

# 四象人の 안면, 음성, 피부 및 맥진 특성에 관한 설문조사 연구

이준희 · 김윤희 · 황민우 · 김종열\* · 이의주 · 송일병 · 고병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한국한의학연구원

## Abstract

### Survey Study about Sasangin's Characteristics of Face, Voice, Skin and Pulse Diagnosis

Lee Jun-Hee · Kim Yun-Hee · Hwang Min-Woo · Kim Jong-Yeol\*

Lee Eui-Ju · Song Il-Byung · Koh Byung-Hee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 1.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grade of practical use, the important element and the significant characteristics of Sasangin's face, voice, skin and pulse diagnostic impression, in Sasang constitutional clinical diagnosis.

#### 2. Methods

We analysed the survey data about Sasangin's face, voice, skin and pulse diagnostic impression, drawn up by specialist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 3. Results and Conclusions

- ① In the application degree of face feature, the case which it was applied with 20-40% and 40-60% were 16 people(43.2%) respectively. In voice, the case applied with 0-20% was 19 people(51.4%), in skin, 0-20% and 20-40% were 14 people(37.8%) respectively and in pulse diagnosis, 0-20% were 25 people(73.0%).
- ② In constitutional diagnosis, the important element of face were 'frontal whole shape', 'whole impression' and 'size and shape of eye, ear, nose and mouth', the important element of voice 'speed of speech', 'purity and impurity' and 'pitch', the important element of skin 'thickness', 'feel of touch' and 'size of skin pores' and the important element of pulse diagnosis 'speed of pulse', 'sinking and floating' and 'weakness and firmness'.
- ③ The important face characteristics of Taeyangin were 'bright eye', 'broad forehead' and 'strong impression', Soyangin 'protruding forehead', 'thin and small lips', 'narrowing and sharp chin', Taeumin 'thick lips', 'flat face', 'large eye, nose, ear and mouth' and Soeumin 'long and slender face', 'downward slanting eyes' and 'small eye, nose, ear and mouth'. The important voice characteristics of Taeyangin were 'loud' and 'clear', Soyangin 'rapid' and 'high-pitched tone', Taeumin 'thick', 'slow' and 'low-pitched tone' and Soeumin 'small and feeble' and 'slow'. The important skin characteristics of Taeyangin were 'thin' and 'white', Soyangin 'thin', 'smooth' and 'elastic', Taeumin 'thick', 'large skin-pore', 'coarse' and Soeumin 'soft', 'thin' and 'subtle skin-pore'. The important pulse characteristics of Taeyangin were 'rapid' and 'large', Soyangin 'rapid' and 'floating', Taeumin 'tense', 'long' and 'solid' and Soeumin 'fine', 'weak' and 'slow'.

**Key Words:** Constitutional Diagnosis, Face, Voice, Skin, Pulse Diagnosis

• 접수일 2007년 11월 12일; 승인일 2007년 11월 29일  
• 교신저자 : 고병희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 +82-2-958-9233 Fax : +82-2-958-9234  
E-mail : kmc2516@khnc.or.kr

• 본 연구는 산업자원부 차세대기술개발사업 중 지능형 한방  
컨텐츠 개발(10028438)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I. 緒 論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에서는 사상체질진단과 관련하여 體形氣像, 容貌詞氣, 性質材幹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皮膚 및 脈診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단서를 제시하고 있다<sup>1</sup>.

『東醫壽世保元』 이외의 저작 및 후세 四象 임상가들은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사상인의 특징들을 제시하고 있다<sup>2,8</sup>. 그러나 전반적인 특징은 비슷하게 서술되고 있으나, 체질진단에 있어 중요시하는 요소는 다소 차이들이 보이고 있다. 이 중 容貌詞氣에서는 이 등이 기존 東武 저서 및 후세의가의 저서를 중심으로 고찰한 연구가 있었다<sup>9</sup>.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 체질진단 시 많이 활용하는 요소가 무엇이며, 각 요소별로 체질진단 시 중요하게 활용하는 체질별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사되어진 바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단 안면, 음성, 피부, 맥진 등과 관련하여 사상체질진단에서의 활용도, 각 영역별로 중요시하는 요소 및 체질진단 시 중요시하는 체질별 특징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사상체질의학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유의한 지견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 II. 設問調查 對象 및 方法

### 1. 조사대상

사상체질의학 전문가집단은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교수진, 사상체질의학회 임원진, 사상체질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하였고, 총 67명이었다.

### 2. 조사방법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 1) 설문지구성

사상체질진단과 관련 안면, 음성, 피부, 맥진의 4개 영역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각 영역의 문항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설문지 구성

문항	항목	비고
문항 1	안면, 음성, 피부, 맥진 각각의 체질진단 시 활용 정도는 ?	- 선택형
문항 2	각 영역별로 체질진단 시 다빈도로 활용하는 요소는?	- 선택형 (다중 선택) - 보기 문항은 기존 문헌 및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함
문항 3	각 영역별로 四象인의 체질진단 시 중요시하는 요소는?	- 서술형 - 각 체질별로 답변

### 2) 설문기간 및 회수율

1차 배포 및 회수기간은 2007년 8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였고, 이 중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었거나, 중도에 설문지가 유실된 경우를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차로 설문지를 배포 및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총 67개 중에서 37개가 회수되어 전체 회수율은 55.22%이었다.

## III. 設問調查 結果 分析

### 1. 사상체질진단과 안면부 특징

1) 안면부 특징의 사상체질진단에서의 활용도  
“사상체질진단 시에 안면부 특징을 전체 진단 요소 중에서 어느 정도 활용하십니까?”에 질문에 대해 ‘40~60%’ 및 ‘20~40%’ 활용하는 경우가 각각 16명(43.2%)이었고, ‘60~80%’ 활용하는 경우는 3명(8.1%)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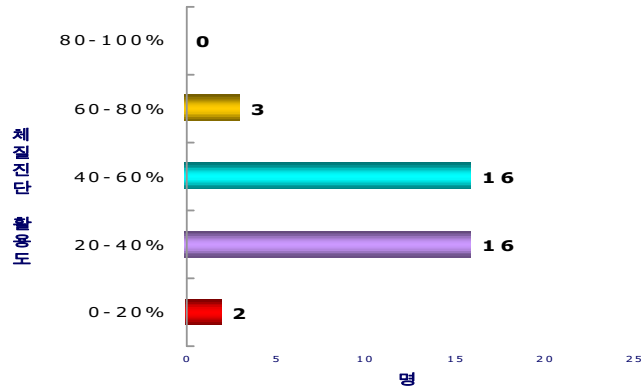


그림 1. 안면부 특징의 사상체질진단 활용도

표 2. 사상체질진단시 다빈도로 활용되는 안면 요소

항목	빈도(명)	백분율(%)
① 전면부의 전체적인 형태 (예 : ○형, ◇형, □형, △형, ▽형...)	37	100.0
② 측면부의 전체적인 형태 (예 : ○형, ◁형, ▷형...)	14	37.8
③ 안면부 상중하의 비율 (예 : 상안부에 비해 하안부가 발달되어 있다.)	12	32.4
④ 좌우폭 대비 상하길이의 비율 (예 : 좌우폭에 비해 상하길이가 길다.)	12	32.4
⑤ 耳目鼻口의 배치 (예 : 귀가 올라 붙은 편이다.)	10	27.0
⑥ 耳目鼻口의 크기 및 모양 (예 : 눈이 작다. 입술이 두껍다.)	33	89.2
⑦ 안면부의 色澤 (예 : 얼굴색이 하얀 편이다.)	13	35.1
⑧ 眼光의 淸濁 (예 : 眼光이 빛나는 편이다.)	24	64.9
⑨ 전체적인 인상 (예: 유순하다. 날카롭다. 짐잡다.)	33	89.2
⑩ 기타	1	2.7
⑪ 체질진단 시 활용하지 않는다.	0	0

2) 사상체질진단 시 다빈도로 활용되는 안면 요소

‘다음의 안면부 요소 중 체질진단 시 중요시 하여 많이 활용하시는 것은?(다중선택)’에 대한 질문에 ‘전면부의 전체적인 형태’가 1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이목비구의 크기 및 모양’, ‘전체적인 인상’, ‘眼光의 淸濁’ 등의 순이었다.

3) 사상체질별 다빈도 중요 안면 특징

(1) 太陽人

太陰人의 다빈도 중요 안면부 특징으로는 ‘안광이 빛난다’, ‘이마가 넓다’, ‘인상이 강하

다’, ‘귀가 크고 발달했다’, ‘눈꼬리가 올라가있다(눈매가 매섭다)’ 등이었다.

(2) 少陽人

少陽人의 다빈도 중요 안면부 특징으로는 ‘이마가 돌출되었다(두상 전후로 발달)’, ‘안광이 빛난다(눈빛이 예리, 날카로움)’, ‘입술이 얇고 작다’, ‘턱이 좁고 뾰족한 역삼각형 안면형태이다’, ‘눈끝이 올라갔다(눈매가 가늘고 길다, 눈매가 날카롭다)’, ‘중안부가 돌출했다(광대뼈가 발달)’ 등이었다.

(3) 太陰人

太陰人의 다빈도 중요 안면 특징으로는 ‘입

표 3. 太陽人의 다빈도 중요 안면 특징

항목	빈도(명)	백분율(%)
안광이 빛난다	20	54.05
이마가 넓다(발달)	8	21.62
인상이 강하다	7	18.92
귀가 크고 발달했다 / 눈꼬리가 올라가있다(눈매가 매섭다)	6	16.22
머리가 크다	4	10.81
얼굴에 살이 없다 / 얼굴형이 가름하다 / 이목비구가 뚜렷하다 / 과단성이 있어 보인다	3	8.11
얼굴이 하얗다 / 위엄이 있어 보인다 / 광대뼈가 발달 / 눈빛이 날카롭다	2	5.41
두눈사이의 거리가 멀다 / 목부위가 발달했다 / 소리에 민감하다 / 비근이 발달하고 코끝이 메부리형이다 / 키가 크다 / 얼굴이 사각형이다 / 어깨가 위로 올라붙어있다 / 눈의 흰자위가 많이 보인다 / 하악이 각이 졌다 / 입술이 작고 얇다 / 눈이 작다 / 목덜미가 발달했다	1	2.70

표 4. 少陰人의 다빈도 중요 안면 특징

항목	빈도(명)	백분율(%)
이마가 돌출되었다(두상이 전후로 발달) / 안광이 빛난다(눈빛이 예리함)	21	56.76
입술이 얇고 작다	15	40.54
턱이 좁고 뾰족한 역삼각형 안면형태이다	14	37.84
눈끝이 올라갔다(눈매가 가늘고 길다, 눈매가 날카롭다)	12	32.43
중안부가 돌출했다(광대뼈가 발달)	7	18.92
하악이 각져있다(턱측면부 발달) / 인상이 야무지다(영리해보인다) / 귀의 상단이 뾰족하고 높다 / 콧망울이 갈고리 모양으로 날카롭다	4	10.81
윗입술이 튀어나와있다(윗입술이 들려있다) / 이마가 동그랗다 / 비준부가 발달하며 코끝이 들려있다 / 면색이 맑으며 붉은 기운이 있다	3	8.11
인상이 신경질적이다 / 이목비구가 크다 / 미통골이 발달했다 / 얼굴길이에 비해 코가 짧다 / 미간이 좁다 / 주걱턱이다	2	5.41
뒤통수가 발달했다 / 코가 돌출되었다 / 코의 산근부위가 넓다 / 인중이 짧다 / 콧볼이 없다 / 입술에 힘을 많이 준다 / 조류의 느낌이 드는 인상이다 / 얼굴이 작다 / 귀가 작다 / 눈이 작다 / 감정표현이 잘 나타난다 / 피부색의 변화가 심하다 / 눈썹이 성기다 / 건강한 인상을 준다 / 구강이 돌출되었다 / 머리숱이 적다 / 눈이 크다 / 면색이 검다 / 치아가 고르지 못하다	1	2.70

술이 두껍다', '얼굴이 평면적이다', '코가 크다', '이목구비가 크다', '인상이 순하고 점잖다', '하악부위가 중후하다', '얼굴이 크다', '안면이 좌우로 발달했다(넓다)', '얼굴이 둥글다', '눈의 광택이 적다', '위엄이 있다', '눈이 크다', '코가 뭉툭하다', '이마가 좌우로 넓다', '이마의 길이가 짧다' 및 '얼굴형이 사각형이다' 등이었다.

#### (4) 少陰人

少陰人의 다빈도 중요 안면 특징은 '인상이 유순하다', '얼굴이 상하로 길며 가름하다', '눈매가 처져있다(눈매가 순하다)', '이목비구가 작다', '인상이 섬세하다', '면색이 희다', '얇전하고 다소곳하다(단정)', '코가 작다', '입이 크다', '코끝이 아래로 처졌다' 및 '하악이 발달되지 않았다' 등이었다.

표 5. 太陰人의 다빈도 중요 안면 특징

항목	빈도(명)	백분율(%)
입술이 두껍다	18	48.65
얼굴이 평면적이다(전후,이마가 납작하다)	14	37.84
코가 크다(콧망울이 둥글고 좌우로 넓음)	13	35.14
이목구비가 크다	11	29.73
인상이 순하고 집잡다	9	24.32
하악부위가 증후하다(턱이 발달되어 있다) / 얼굴이 크다 / 안면이 좌우로 발달했다(넓다)	8	21.62
얼굴이 둥글다 / 눈의 광택이 적다(눈빛이 탁하다) / 위엄이 있다(후덕하다)	7	18.92
눈이 크다 / 코가 몽푹하다	5	13.51
이마가 좌우로 넓다 / 이마의 길이가 짧다 / 얼굴형이 사각형이다	4	10.81
면색이 하얗거나 붉은 경우가 있다 / 관골이 발달했다 / 얼굴선이 굵다 / 이마가 편평하다 / 안면부 살이 많아 보인다 / 쌍꺼풀이 두껍고 눈두덩이 넓다 / 눈꼬리가 처져있다 /	3	8.11
얼굴의 피부가 두껍다 / 색택이 탁하며 검다 / 안면부에 기름이 많다	2	5.41
이마가 직사각형이다 / 이마가 좁다 / 코가 작다 / 목선이 굵다 / 귀가 크다 / 코가 길고 비근, 코끝이 발달 / 얼굴 상하보다 좌우로 발달 / 코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 머리가 크다 / 코가 편평하다 / 눈 크기가 작아 보인다 / 이목비구의 경계선이 모호하다 / 머리털이 굵다 / 대머리가 많다(나이 들수록) / 눈썹이 진하다 / 상하가 실한 느낌이다 / 소의 눈의 형태(순하다. 둔하다) / 뜬눈에 보인다	1	2.70

표 6. 少陰人의 다빈도 중요 안면 특징

항목	빈도(명)	백분율(%)
인상이 유순하다	15	40.54
얼굴이 상하로 길며 가름하다 / 눈매가 처져있다(눈매가 순하다)	13	35.14
이목비구가 작다 / 인상이 섬세하다 /	12	32.43
면색이 희다 /	7	18.92
얇전하고 다소곳하다(단정)	6	16.22
코가 작다 / 입이 크다 / 코끝이 아래로 처졌다 /	5	13.51
하악이 발달되지 않았다 /	4	10.81
얼굴이 작다 / 코끝이 둥글다 / 이마가 편평하다 /	3	8.11
뺨통수가 납작하다 / 입술이 튀어 나왔다 / 이마가 시원하다 /		
상안부에 비해 하안부가 발달했다 / 입술이 얇고 작다 /	2	5.41
하악이 발달해서 턱이 없는 느낌이다 /		
눈크기에 비해 눈동자가 크다 / 코의 상부는 좁고 하부는 넓은 편이다 /		
이마 중간이 함몰된 경우가 있다 / 눈이 커 보인다 /		
하악부가 돌출되어 있다 / 이마가 둥글게 깎여있다 /		
아랫입술이 발달했다 / 관골이 발달하지 않았다 / 인상이 차갑다 /	1	2.70
머리술이 적고 모발이 가늘다 / 이마가 좁다 / 잔털이 많다 /		
치아가 고르고 안쪽으로 모이는 경우가 많다 / 얼굴선이 약하다 /		
입주위가 황색이다 / 입술이 예쁘고 입매무새가 견실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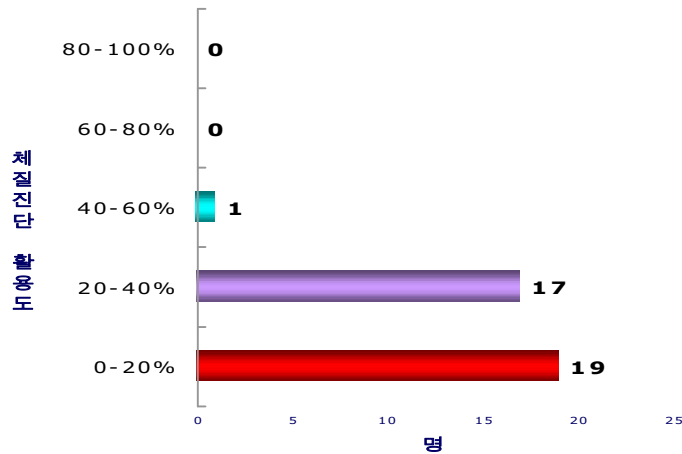


그림 2. 음성 특성의 사상체질진단 활용도

표 7. 사상체질진단시 다빈도로 활용되는 음성요소

항목	빈도(명)	백분율(%)
① 크기 및 強弱 (예 : 목소리가 큰 편이다.)	27	73.0
② 高低 (예 : 목소리가 낮은 편이다.)	28	75.7
③ 淸濁 (예 : 목소리가 탁한 편이다.)	29	78.4
④ 말의 빠르기 (예 : 말이 빠르다.)	32	86.5
⑤ 음절의 명료성 (예 : 음절사이가 명확하다.)	11	29.7
⑥ 기타	4	10.8
⑦ 체질진단 시 활용하지 않는다.	1	2.7

## 2. 사상체질진단과 음성특징

### 1) 음성 특성의 사상체질진단에서의 활용도

‘사상체질진단 시에 음성 특징을 전체 진단 요소 중에서 어느 정도 활용하십니까?’에 대한 답변으로 ‘0-20%’로 활용하는 경우가 19명 (51.4%)으로 가장 많았고, ‘40-60%’로 활용하는 경우는 1명(2.7%)이었다.

### 2) 사상체질진단 시 다빈도로 활용되는 음성 요소

‘다음의 음성 요소 중 체질진단 시 중요시하여 많이 활용하시는 것은? (다중선택)’에 대한 답변으로 ‘말의 빠르기’가 86.5%로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은 ‘淸濁’, ‘高低’, ‘크기 및 強弱’의 순이었다.

### 3) 각 체질별 중요 음성 특징

#### (1) 太陽人

太陽人의 다빈도 중요 음성 특징으로는 ‘목소리가 크다’, ‘음성이 멀리까지 들린다(울린다)’, ‘청음이다’, ‘카랑카랑하다’, ‘고음이다’, ‘음절이 명료하다’, ‘목소리에 힘이 있다’ 등이었다.

#### (2) 少陽人

少陽人의 다빈도 중요 음성특징은 ‘말이 빠르다’, ‘고음이다’, ‘음성이 맑다’, ‘씻소리가 나

표 8. 太陽人의 다빈도 중요 음성 특징

항목	빈도(명)	백분율(%)
목소리가 크다	8	21.62
음성이 멀리까지 들린다(울린다)	7	18.92
청음이다	6	16.22
카랑카랑하다	5	13.51
고음이다 / 음절이 명료하다 / 목소리에 힘이 있다 /	4	10.81
목소리가 웅장하다	3	8.11
어조가 단호하다	2	5.41
목소리가 굵다 / 음성이 맑다 / 목소리가 우렁차다 / 말씨가 숨어들지 않는다 / 어투가 단정적이다 / 청중을 휘어잡는 목소리이다 / 조용한듯하면서 말이 분명하다 / 말투가 급하다 / 음성이 들떠있다 / 콧소리가 많다 / 어투가 논리정연하다 / 피치가 높다 / 말이 적다 /	1	2.70

표 9. 少陽人의 다빈도 중요 음성 특징

항목	빈도(명)	백분율(%)
말이 빠르다	32	86.49
고음이다	22	59.46
음성이 맑다	8	21.62
췌소리가 나듯 거칠다 / 목소리가 가볍다 / 말이 많다	5	13.51
목소리가 크다 / 목소리 톤이 날카롭다 / 말투가 단정적이다 / 어투가 급하다	3	8.11
말투가 공격적이다 / 말의 두서가 부족하다(감정적이다) / 목소리가 가늘다 / 대화가 간결하다 / 카랑카랑하다 / 음절이 분명하다	2	5.41
대화시 제스처가 많다 / 음성이 탁하다 / 고음에서 목소리가 갈라진다 / 저음에서 약하다가 강해진다 / 문장을 읽을 때 처음부분은 강하게 끝부분은 약하게 읽는다 / 자신의 말만 한다 / 명확하고 논리적이다 / 소리가 얇다 / 감정적 격양이 있다 / 음성의 높낮이 변화가 많다 / 말이 유창하다 /	1	2.70

듯 거칠다’, ‘목소리가 가볍다’, ‘말이 많다’ 등이었다.

(3) 太陰人

太陰人의 다빈도 중요 음성 특징은 ‘탁음이다’, ‘말이 느리다’, ‘저음이다’, ‘목소리 톤이 굵다’, ‘목소리가 중후하다’, ‘음성이 명료하지 않다’, ‘목소리가 크다’, ‘말수가 적으며 웅장하다’ 등이었다.

(4) 少陰人

少陰人의 다빈도 음성특징은 ‘말소리가 작다’, ‘목소리에 힘이 없다’, ‘말을 천천히 한다’, ‘음성이 명료하다(분명하다)’, ‘음성이 낮다’, ‘음성의 선이 가늘다’, ‘고요하다’ 등이었다.

표 10. 太陰人의 다빈도 중요 음성 특징

항목	빈도(명)	백분율(%)
탁음이다	21	56.76
말이 느리다	17	45.95
저음이다	16	43.24
목소리 톤이 굵다	9	24.32
목소리가 중후하다	8	21.62
음성이 명료하지 않다	7	18.92
목소리가 크다	5	13.51
말수가 적으며 웅장하다	4	10.81
말을 오래하면 목이 잘 잠긴다 / 성량이 풍부하다	3	8.11
말소리에 힘이 있다 / 위엄이 있다	2	5.41
잘 더듬는다 / 음성분석 시 잡음이 많다 / 말이 많아도 조리가 있다 / 어투가 간접적이다(돌려 말한다) / 목소리가 습기찬 느낌이 든다 / 음성의 높낮이 변화가 적다 / 쉿소리가 많다 / 한증자는 가늘고 가라앉았다(열증자는 탁하고 크다) / 호흡이 짧다	1	2.70

표 11. 少陰人의 다빈도 중요 음성 특징

항목	빈도(명)	백분율(%)
말소리가 작다	16	43.24
목소리에 힘이 없다	10	27.03
말을 천천히 한다	7	18.92
음성이 명료하다(분명하다) / 음성이 낮다	6	16.22
음성의 선이 가늘다	5	13.51
고요하다 / 문장의 끝이 뚜렷하지 않다	4	10.81
침음이다 / 말투가 차분하다	3	8.11
목소리의 울림이 적다 / 목소리 톤이 부드럽다 / 조근조근 말한다 문장의 첫부분, 끝부분의 강세 일정하다 / 음성이 나긋나긋하다	2	5.41
말수가 적다 / 주파수가 높다 / 에너지가 낮다 / 성대의 개폐가 일정하다 / 발음이 틀리는 경우가 많다 / 음성의 거친 정도는 태음, 소양의 중간이다 / 말투가 애교스럽다 / 대화가 길고 복잡하다 / 음성이 가볍다 / 고성을 지르면 목이 금방 쉰다 / 노인이 되면 말할 기운이 없다(호흡이 短) / 음성이 높다 / 평소에 저음이나 울광증에 고음이다 / 음성이 명료하지 않다	1	2.70

### 3. 사상체질진단과 피부

1) 피부 특징의 사상체질진단에서의 활용도  
‘사상체질진단 시에 피부 특징을 전체 진단  
요소 중에서 어느 정도 활용하십니까?’에 대한  
답변으로 ‘0-20%’ 및 ‘20-40%’로 활용하는 경우

가 각각 14명(37.8%)으로 가장 많았고, ‘80~  
100%’로 활용하는 경우도 1명(2.7%)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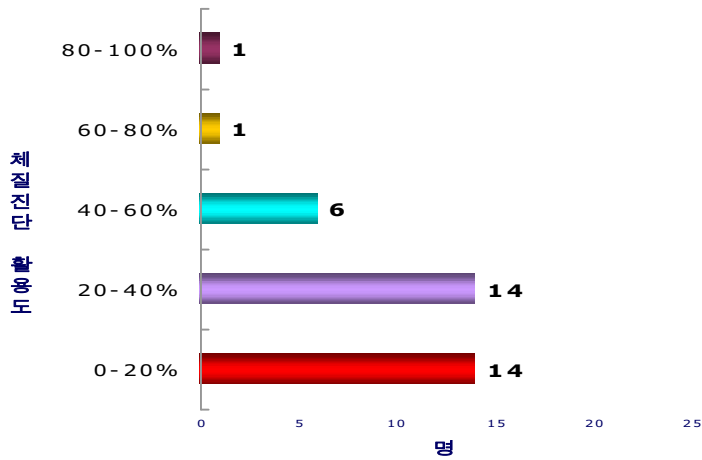


그림 2. 피부 특성의 사상체질진단 활용도

표 12. 사상체질진단시 다빈도로 활용되는 피부 요소

항목	빈도(명)	백분율(%)
① 두께(厚薄)(예 : 두껍다. 얇다.)	33	89.2
② 탄력도(軟硬) (예 : 잘 당겨질 정도로 연하다. 잘 당겨지지 않을 정도로 탄력이 있다.)	26	70.3
③ 감촉(예 : 미끄럽다. 부드럽다. 거칠다)	33	89.2
④ 모공크기 및 피부상태 (예 : 모공이 커서 거칠다. 모공이 작아서 세밀하다.)	29	78.4
⑤ 色澤(예 : 피부색이 하얗다.)	19	51.4
⑥ 기타	2	5.4
⑦ 체질진단 시 활용하지 않는다.	0	0.0

2) 사상체질진단 시 다빈도로 활용되는 피부 요소

‘다음의 피부 요소 중 체질진단 시 중요시하여 많이 활용하시는 것은? (다중선택)’에 대한 답변으로 ‘두께’ 및 ‘감촉’ 이 각각 89.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모공크기 및 피부상태’ 및 ‘탄력도’의 순이었다.

3) 각 체질별 중요 피부 특징

(1) 太陽人

太陽人의 다빈도 중요 피부 특징은 ‘피부가 얇다’, ‘하얗다’, ‘건조하거나 거칠어지기 쉽다’,

‘매끄럽다’ 등이었다.

(2) 少陽人

少陽人의 다빈도 주요 피부 특징은 ‘피부가 얇다’, ‘매끄럽다’, ‘탄력이 있다’, ‘모공이 작다’, ‘피부가 부드럽다’, ‘하얗다’, ‘건조하여 비듬, 각질이 많다’, ‘색이 맑고 밝다’, ‘피부가 거칠다’ 등이었다.

(3) 太陰人

太陰人의 다빈도 중요 피부 특징은 ‘기육이 두껍다’, ‘모공이 크다’, ‘피부가 거칠다’, ‘탄력이 있다’, ‘땀이 많이 느껴진다’, ‘팔다리 털이 많다’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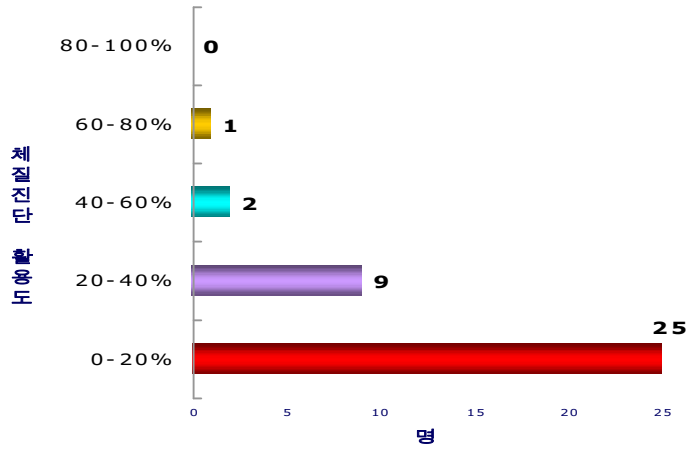


그림 3. 맥진 특징의 사상체질진단 활용도

표 14. 사상체질진단시 다빈도로 활용되는 맥진 요소

항목	빈도(명)	백분율(%)
① 浮沈	20	54.1
② 遲數	26	70.3
③ 大細	11	29.7
④ 虛實	14	37.8
⑤ 長短	12	32.4
⑥ 기타	4	10.8
⑦ 체질진단 시 활용하지 않는다.	8	21.6

#### 4. 사상체질진단과 맥진

1) 맥진 특징의 사상체질진단에서의 활용도  
 ‘사상체질진단 시에 맥진 특징을 전체 진단 요소 중에서 어느 정도 활용하십니까?’에 대한 답변으로 ‘0-20%’ 활용하는 경우가 25명(73.0%)으로 가장 많았고, ‘60-80%’로 활용하는 경우도 1명이었다.

2) 사상체질진단 시 다빈도로 활용되는 맥진 요소

‘다음의 맥진요소 중 체질진단 시 중요시하여 많이 활용하시는 것은? (다중선택)’에 대한 답변으로 ‘遲數’이 70.3%로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은 ‘浮沈’, ‘虛實’ 및 ‘長短’의 순이었다.

3) 각 체질별 중요 맥진 특징

(1) 太陽人

太陽人의 다빈도 중요 맥진 특징은 ‘數’, ‘大’ 등이었다.

(2) 少陽人

少陽人의 다빈도 맥진 특징은 ‘數’, ‘浮’, ‘有力’ 등이었다.

(3) 太陰人

太陰人의 다빈도 중요 맥진 특징은 ‘緊’, ‘長’, ‘實(有力)’, ‘굵은 느낌(大)’, ‘沈’, ‘遲’, ‘澁’ 등이었다.

표 15. 四象人의 다빈도 중요 맥진 특징

항목		합계 (명)	백분율 (%)
태양인	數	4	10.81
	大	2	5.41
	上焦脈實 / 實 / 寸部에서 촉진 / 澁 / 病證에 따라 다양하다	1	2.70
소양인	數	22	59.46
	浮	12	32.43
	有力	5	13.51
	尺脈弱 寸脈強 / 弦	4	10.81
	細	3	8.11
	滑 / 緊	2	5.41
	浮散한 느낌 / 中, 上焦脈實 / 關上에서 촉진 / 弦細, 弦緊 / 長 / 寸脈 > 尺脈 / 虛證者는 少陰人과 유사 / 病證에 따라 변화 많다 / 발병시 부정맥이 많다	1	2.70
태음인	緊	13	35.14
	長 / 實(유력)	9	24.32
	굵은 느낌(대)	8	21.62
	沈	6	16.22
	遲	5	13.51
	澁	4	10.81
	關脈強	2	5.41
	中焦脈實 / 有熱者 滑數大 / 關下에서 촉진 / 滑澁 / 洪 / 滑 허증자는 少陰人과 유사 / 불안정하다 / 心肺脈 불안정 / 胃, 肝脈이 좋다 / 緩 / 건강시 遲, 緊有力 / 병증시 有熱者 浮緊數	1	2.70
	細	14	37.84
	弱	11	29.73
소음인	緩	10	27.03
	虛(無力)	8	21.62
	沈 / 遲(有汗者)	7	18.92
	尺脈強	2	5.41
	下焦脈實 / 細數 / 尺에서 촉진 / 浮數 / 脈이 안 잡히기도 한다 / 浮 / 弦(피로시) / 鬱狂시 浮緊數 / 太陰, 少陰證 沈無力 / 澁 / 맥의 변화가 심하다	1	2.70

(4) 少陰人

少陰人의 다빈도 중요 맥진 특징은 ‘細’, ‘弱’, ‘緩’, ‘虛(無力)’, ‘沈’, ‘遲(有汗者)’ 등이었다.

IV. 考 察

四象體質 임상에서 체질진단은 그 첫 단계로 『東醫壽世保元』「四象人辨證論」은 “明知其人 而又明知其證 則應用之藥 必無可疑. 人物形

容 仔細商量 再三推移 如有迷惑 則參互病證 明見無疑然後 可以用藥 最不可輕忽 而一貼藥 誤投重病險證 一貼藥 必殺人”이라 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體形氣像, 容貌詞氣, 性質材幹 등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원칙만이 제시되고 세부적인 四象人의 특징에 대한 내용은 그 단서만이 제시되고 있어 실제 체질진단 시에는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상체질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안면, 음성, 피부 및 맥진 특성과 관련하여 사상체질진단 시 중요시하는 요소 및 四象人別 중요 특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상체질진단 시 중요요소 및 중요도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체질진단시 안면부 특징의 활용정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20~40%(16명), 40~60%(16명) 정도로 활용한다고 하였고, 60-80%로 활용하는 경우도 3명으로 실제 임상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성 특징의 활용정도는 0~20%가 19명, 20~40%가 17명으로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부 특징의 활용정도도 대부분이 0~20%(14명), 20~40%(14명) 정도 활용한다고 하여 체질진단시 적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0~100%로 활용도가 높다고 응답한 경우도 1명 있었다. 맥진 특징의 활용도는 25명이 0~20% 정도 활용한다고 하여 이번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요소 중 가장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과 같이 체질진단에서의 활용도는 안면특징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편이었고, 다른 요소들은 부분적으로 활용됨을 알 수 있었다.

사상체질진단 시 다빈도로 활용되는 안면요소 조사에 있어서는 ‘전면부의 전체적인 형태’(100%), ‘전체적인 인상’(89.2%), ‘耳目鼻口의 크기 및 모양’(89.2%), ‘眼光의 淸濁’(64.9%) 등을 중요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전면부의 전체적인 형태’, ‘전체적인 인상’ 및 ‘眼光의 淸濁’ 등이 중요하게 활용된다는 것은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요소보다는 전체적인

인상 및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체적인 형태 및 眼光 등이 중요시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목비구의 모양 및 크기도 개별적 요소로서의 의미보다는 전체적인 인상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강조되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에서 ‘太陰人 容貌詞氣 起居有儀 而修整正大, 少陰人 容貌詞氣 體任自然 而簡易小巧’에서 제시된 太陰人과 少陰人의 容貌詞氣 특징도 전체적인 인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 임상에서도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느낌 및 인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등의 연구<sup>9)</sup>에서도 각 체질별로 容貌에 대한 변증지표에서 ‘전체 인상’에 대한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서술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太陽人의 중요 요소로 가장 많이 응답되어진 것은 ‘眼光이 빛난다’(54.05%)이며, 다음으로는 ‘이마가 넓다’(21.62%), ‘인상이 강하다’(18.92%), ‘귀가 크고 발달했다’(16.22%), ‘눈꼬리가 올라가 있다’(16.22%) 등이었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太陽人의 특징 중 하나로 ‘果斷’으로 표현하였는데, 빛나는 안광, 넓은 이마, 발달된 귀, 올라간 눈꼬리 등이 강한 인상을 만들어내고 과단성 있는 외모의 특징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眼光이 빛난다’는 『四象診療保元』에서는 ‘광채가 있다’, 『연변 사상의학』에서는 ‘정기가 있다’, 『性理臨床論』에서는 ‘눈빛이 강하다’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마가 넓다’는 『四象診療保元』 등에서도 제시되고 있다. ‘인상이 강하다’는 『東醫壽世保元』에서 ‘果斷’, 『金匱秘方』 「四象辨」에서는 ‘果斷氣’, 『四象方藥合編』에서는 ‘威猛如餘’, 『東醫四象要訣』에서는 ‘과단성이 있고 용과 같다’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少陽人의 중요 요소로 많이 응답되어진 것으로는 ‘이마가 돌출되었다(두상이 전후로 발달)’(56.76%), ‘안광이 빛난다’(56.76%), ‘입술이 얇고 작다’(40.54%), ‘턱이 좁고 뾰족한 역삼각형이다’(37.84%), ‘눈 끝이 올라가 있다’(32.43%), ‘중안부가 돌출했다(광대뼈 발달)’(18.82%) 등으

로 주로 돌출된 이마 및 좁고 뾰족한 턱 등의 부분적인 특징과 빛나는 눈빛, 올라간 눈 끝, 얇고 작은 입술 등 이목비구의 모양 및 크기에 대한 내용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마가 돌출되었다’는 『性理臨床論』에서는 ‘양미간이 돌출되어 있거나, 중간부위가 돌출되어 있는데 가운데로 물리는 느낌’으로 제시하고 있다. ‘안광이 빛난다’는 『金匱秘方』四象演義에서는 ‘清朗’, 『四象方藥合編』에서는 ‘眼光炯明 眼球突兀’, 『四象診療保元』에서는 ‘정기어림’, 『性理臨床論』에서는 ‘둥글면서 맑다, 눈이 영리하게 보이면서 청하다’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입술이 얇고 작다’는 『普濟演說』에서는 ‘脣頰薄’, 『金匱秘方』四象辨에서는 ‘脣頰淺薄’, 『四象方藥合編』에서는 ‘脣頰頤尖’, 『四象診療保元』에서는 ‘口小脣薄頤尖’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턱이 좁고 뾰족한 역삼각형이다’는 『普濟演說』에서는 ‘脣頰薄’, 『金匱秘方』四象辨에서는 ‘脣頰淺薄’, 『金匱秘方』四象演義에서는 ‘下官尖’, 『四象方藥合編』에서는 ‘脣薄頤尖’, 『四象診療保元』에서는 ‘口小脣薄頤尖’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太陰人の 다빈도 중요 안면 특징으로는 ‘입술이 두껍다’(48.65%), ‘얼굴이 평면적이다’(37.84%), ‘코가 크다(콧망울이 둥글고 좌우로 넓음)’(35.14%), ‘이목구비가 크다’(29.73%), ‘인상이 순하고 점잖다’(24.32%), ‘턱이 발달되어 있다(하악부위가 중후하다)’(21.62%), ‘얼굴이 크다’(21.62%), ‘안면이 좌우로 발달했다(넓다), (21.62%) 등이었다. 점잖고 순한 인상, 전체적으로 평면적이면서 코고 좌우로 발달된 얼굴, 발달된 턱 등 전체적인 인상 및 특징에 대한 내용이 많고, 두툼한 입술과 큰 코 등 이목비구가 큰 특징 등이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입술이 두껍다’는 『普濟演說』에서는 ‘脣厚’, 『四象診療保元』에서는 ‘입술이 두텁다’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코가 크다’는 『四象方藥合編』에서는 ‘鼻腔露闊’, 『四象診療保元』에서는 ‘코크다’, 『四象要覽』 및 『東醫四象要訣』에서는 ‘準頭(코끝) 풍부’, 『性理臨床論』에서는

‘뚱뚱하고 얼굴전체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다. 후 납작하면서 넓은 경우도 있고, 후 매부리코도 있다.’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인상이 순하고 점잖다’는 『普濟演說』에서는 ‘面部氣質鎮重’, 『金匱秘方』四象演義에서는 ‘似下流 厚重 氣像儼然’, 『四象方藥合編』에서는 ‘厚重, 氣血如餘’, 『東醫四象要訣』에서는 ‘무겁고 점잖다’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턱이 발달되어 있다’는 『四象方藥合編』에서는 ‘地閣豐厚’로 표현하고 있다.

少陰人の 다빈도 중요 안면 특징은 ‘인상이 유순하다’(40.54%), ‘얼굴이 상하로 길며 가름하다’(35.14%), ‘눈매가 처져있다(눈매가 순하다)’ (35.14%), ‘이목비구가 작다’(32.43%), ‘인상이 섬세하다’(32.43%), ‘면색이 희다’(18.92%), ‘얇전하고 다소곳하다(단정)’(16.22%) 등이었다. 즉 유순하고 섬세하며 얇전하고 다소곳한 인상을 주로 언급하였고, 이러한 인상에 많은 영향을 주는 상하로 길며 가름한 얼굴, 작은 이목비구와 처진 눈 등이 중요하게 빈용되는 요소로 조사되었다. ‘얼굴이 상하로 길며 가름하다’는 『金匱秘方』四象演義에서 ‘多圓便如月形 又有長垂如焉象者’, 『性理臨床論』에서는 ‘체구에 비하여 긴 편. 즉 驪와 같이 좀 긴 편’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목비구가 작다’는 『四象診療保元』에서 ‘사관이 작다’로 제시되고 있다. ‘인상이 섬세하다’, ‘얇전하고 다소곳하다’ 등은 『東醫壽世保元』에서 제시되고 있는 ‘體任自然而簡易小巧, 短小靜雅’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사상체질진단 시 다빈도로 활용되는 음성 요소로는 ‘말의 빠르기’(86.5%), ‘清濁’(78.4%), ‘高低’(75.7%), ‘크기 및 強弱’(73.0%)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말에서 느낄 수 있는 인상을 만들어내는 요소들이 모두 중요시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太陽人の 다빈도 중요 음성 특징으로는 ‘목소리가 크다’(21.62%), ‘음성이 멀리까지 들린다(울린다)’(18.92%), ‘칭음이다’(16.22%) 등으로 응답 비율이 다른 체질에서보다 낮았는데, 이는 적은 太陽人の 비율로 이에 대한 경험들이

적어서인 것으로 사료된다. 太陽人의 음성은 주로 목소리가 크고, 멀리까지 들릴 정도의 웅장함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한편, 『東醫四象要訣』에서는 ‘말이 많고 급하다’고 하여 다소 다른 측면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다.

少陽人의 다빈도 중요 음성특징은 ‘말이 빠르다’(86.49%), ‘고음이다’(59.46%), ‘음성이 맑다’(21.62%) 등으로 빠르고 고음의 특징을 언급한 경우가 과반수를 넘었다. 少陽人의 詞氣에 대하여 『普濟演說』에서는 ‘闊濶’로, 『金匱秘方』 『四象演義』에서는 ‘細亮’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四象方藥合編』에서는 ‘輕言, 音聲細亮者’로, 『四象診療保元』에서는 ‘낭낭, 빠름, 경솔, 비논리’로, 『四象要覽』에서는 ‘어운이 맑고, 枯燥한 편이며, 말 기운이 좋은 자가 많다’로, 『東醫四象要訣』에서는 ‘語韻이 맑고 기운이 좋다’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활발하고, 맑고, 낭랑하고, 말이 많아 경솔해 보일 수 있는 특징 등을 제시하였다. 이 중 ‘빠르다’가 실제에서는 가장 다수가 중요시하는 특징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고음’이라고 한 것은 낭랑하고 활발하게 보이는 것과 관련되는 요소로 사료된다.

太陰人의 다빈도 중요 음성 특징은 ‘탁음이다’(56.76%), ‘말이 느리다’(45.95%), ‘저음이다’(43.24%), ‘목소리 톤이 굵다’(24.32%), ‘목소리가 중후하다’(21.62%), ‘음성이 명료하지 않다’(18.92%) 등으로 특히 ‘탁음이다’는 과반수를 넘었으며, 주로 탁하고 느리며 저음의 특징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太陰人의 詞氣에 대하여 『東醫壽世保元』에서는 ‘修整正大’로 표현되고 있으며, 『普濟演說』에서는 ‘正大’로, 『金匱秘方』 『四象演義』에서는 ‘深默言寡’로 표현하고 있다. 『四象方藥合編』에서는 ‘鄭聲不欲言, 濁大, 音聲濁大者’로, 『四象要覽』에서는 ‘말이 적으며, 어운이 웅장한 사람이 많고 대개 침중한 기운이 있다’로, 『東醫四象要訣』에서는 ‘말이 적으며 語韻이 웅장한 자도 있으나 대개는 沈重한 편이다’로 제시하고 있다.

少陰人의 다빈도 음성특징은 ‘말소리가 작

다’(43.24%), ‘목소리에 힘이 없다’(27.03%), ‘말을 천천히 한다’(18.92%), ‘음성이 명료하다(분명하다)’(16.22%), ‘음성이 낮다’(16.22%) 등으로 주로 작고 힘이 없으면서 느린 특징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少陰人의 詞氣에 대하여 『東醫壽世保元』에서는 ‘簡易小巧’로 표현하고 있다. 『普濟演說』에서는 ‘輕銳’로, 『四象方藥合編』에서는 ‘多言, 半清半濁, 音聲半清半濁者’로, 『四象診療保元』에서는 ‘조용, 침착하며 조리정연’으로, 『四象要覽』에서는 ‘온유한 편이다’로 제시하고 있다.

사상체질진단 시 다빈도로 활용하는 주요 피부요소는 ‘두꺼’ 및 ‘감촉’ 이 각각 89.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모공크기 및 피부상태’(78.4%), ‘탄력도’(70.3%)의 순이었다.

太陽人의 다빈도 중요 피부 특징은 ‘피부가 얇다’(24.32%), ‘하얗다’(13.51%) 등이었다. 太陽人 피부에 대해서는 기존 문헌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고, 『東醫四象要訣』에서 ‘少陰人과 비슷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少陽人의 다빈도 중요 피부 특징은 ‘피부가 얇다’(48.65%), ‘매끄럽다’(45.95%), ‘탄력이 있다’(27.03%), ‘모공이 작다’(21.62%), ‘피부가 부드럽다’(18.92%) 등이었다. ‘겉피부만 쉽게 당겨진다’, ‘고무공처럼 껍질이 있다’ 등의 소수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얇은 피부의 다른 표현으로 사료된다. ‘피부가 부드럽다’라고 7명(18.92%)이 언급하였는데, 이와 반대인 ‘피부가 거칠다’라고 표현한 경우가 4명(10.81%) 있었다. 少陽人 피부에 대한 기존 문헌을 보면, 『金匱秘方』 『四象演義』에서는 ‘皮血淺薄’으로, 『四象要覽』에서는 ‘미끄럽고 얇어 보인다. 그러나 혹 두터운 자도 있다.’로, 『東醫四象要訣』에서는 ‘미끄럽고 얇어 보인다.’로, 『性理臨床論』에서는 ‘근육은 厚軟하고 표피는 淺한 편이다. 또한 육안 상 潤氣가 없어 거칠게 보이지만 만져보면 부드럽다.’로 표현하여서, 대체적으로 얇고 매끄러운 피부를 강조하고 있는데, 본 조사에 의하면 실제 임상에서도 이러한 요소를 중요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太陰人の 다빈도 중요 피부 특징은 ‘기육이 두껍다’(89.19%), ‘모공이 크다’(78.38%), ‘피부가 거칠다’(56.76%), ‘탄력이 있다’(16.22%) 등이었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肌肉 堅實, 陽剛 堅密 則大病也”로 제시하고 있는데, 『金匱秘方』 「四象辨」에서는 이와 같고, 『四象要覽』에서는 ‘두텁고 뻣세다. 혹 부드러운 사람도 있다.’로, 『四象要覽』에서는 ‘두텁고 거칠다. 혹 부드러운 사람도 있다.’로 『性理臨床論』에서는 ‘근육은 堅實하고 표피는 厚한 편이다. 理가 성기다. 또한 육안 상 潤氣가 없으므로 거칠게 보이고, 촉진상도 삼베를 만지는 것 같이 거칠게 느껴진다.’로 표현하였는데 대체로 두텁고 거친 특징을 언급하였고 본 설문조사에서도 이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少陰人の 다빈도 중요 피부 특징은 ‘피부가 곱고 부드러움’(94.59%), ‘기육이 얇다’(45.95%), ‘모공이 섬세하다’(32.43%), ‘하얗다’(18.92%), ‘탄력이 적고 물렁거린다’(18.92%) 등이었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肌肉 浮軟, 陽剛 堅密 則完實也”로 제시하였고, 『四象要覽』에서는 ‘뜨고 연하다.’로, 『東醫四象要訣』에서는 ‘연하고 부드러움.’로, 『性理臨床論』에서는 ‘근육은 浮軟하고 표피는 薄한 편이다. 理가 치밀하다. 또한 육안 상 潤氣가 있으므로 부드러움 보이고, 촉진상도 비단결같이 부드러움.’로 표현하여 대체로 연하고 부드러운 특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체질진단 시 중요하게 사용하는 맥진 특징에 대해 ‘遲數’이 7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浮沈’이 54.1%로 그 다음이었다. 이외에도 ‘虛實’(37.8%), ‘長短’(32.4%), ‘大細’(29.7%) 등의 요소도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체질진단 시 활용하지 않는다는 응답한 경우도 8명(21.6%)이었다. 특히 체질진단 시 어느 정도 활용하고, 각 체질별 맥진 특징을 서술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病證에 따라 脈狀이 달라지므로 어느 한 체질의 脈診 특성을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부언을 하였다. 東武는 이와 관련하여 『東醫壽世保元』 「醫源論」에서

“若夫脈法者 執證之一端也 其理在於浮沈遲數而不必究其奇妙之致也”라 하여 脈法에 浮沈遲數만을 강조한바 있다.

太陽人の 다빈도 중요 맥진 특징은 ‘數’(10.81%), ‘大’(5.41%) 등이었다. 太陽人 맥진 특성에 관한 자료는 『東醫壽世保元』을 포함하여 어떤 문헌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少陽人の 다빈도 맥진 특징은 ‘數’(59.46%), ‘浮’(32.43%) 등이었다. 少陽人の 맥진특성에 대해 『四象要覽』에서는 ‘뜨고 자진 편이다’라고 하였고, 『東醫四象要訣』에서는 ‘뜨고 잦은 편이다. 혹 미약한 자도 있다’라고 하여, ‘浮’하고, ‘數’한 특징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數’과 ‘浮’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四象方藥合編』에서는 1분간의 맥박수를 사상인간에 비교하였고 少陽人이 가장 많은 것(一分間 八十內外者)으로 보았는데, 少陽人 數脈의 특징을 강조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性理臨床論』에서는 ‘微細不現(처음에 손을 올려놓으면 없고, 조금 힘주면 있다가 더욱 힘주면 사라진다)’으로 다른 문헌과는 다른 측면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太陰人の 다빈도 중요 맥진 특징은 ‘緊’(34.14%), ‘長’(24.32%), ‘實(有力)’(24.32%), ‘굵은 느낌(大)’(21.62%), 등이었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太陰人 맥진 특징을 ‘脈長而緊’으로 서술하였고, 『四象要覽』, 『東醫四象要訣』 및 『性理臨床論』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특히 『性理臨床論』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눌러도 힘이 있다’고 하여 ‘長而緊’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본 설문조사에서도 ‘緊’, ‘長’, ‘有力’ 등의 특징을 중요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四象方藥合編』에서는 ‘脈搏一分間 六十內外者’이라 하여 四象人 중 맥박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표현하였다.

少陰人の 다빈도 중요 맥진 특징은 ‘細’(37.84%), ‘弱’(29.73%), ‘緩’(27.03%) 등이었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少陰人 맥진 특징을 ‘緩而弱’이라 서술하였고, 『四象要覽』, 『東醫四象要訣』 및 『性理臨床論』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

는데 특히 『性理臨床論』에서는 ‘처음에 그대로 나타나고, 힘주면 緩脈이 뛰다가 遲해진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본 설문조사에서도 ‘弱’ 및 ‘緩’의 특징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細’라고 표현한 경우가 37.8%로 가장 많았다. 『四象方藥合編』에서는 ‘脈搏一分間七十內外者’라고 하여 맥박수가 太陰人과 少陽人의 중간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사상체질진단과 관련하여 안면, 음성, 피부 및 맥진 특징의 활용도와 실제 체질진단 시 중요하게 활용하는 四象人의 특징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東醫壽世保元』을 비롯한 東武의 저작 및 후대 임상가들의 견해와 실제 설문조사결과는 대체로 일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그 중요도 등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교수진, 사상체질의학회 임원진 및 한의사전문외제도시행 후 배출된 사상체질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실제 임상에서 체질진단 시에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를 분석한 것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으며, 향후 사상체질진단의 객관화 및 진단 guide line 정립에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처음 설정된 사상체질전문가 집단 67명에 비해 설문지가 회수된 것이 37명으로 그 회수율이 낮았다는 점과 설문문항 중 각 체질별 특징에 대해서는 서술식으로 답변하도록 하여, 그 구체적인 표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소지가 있었다는 점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한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V. 結 論

사상체질의학 전문가집단 대상(총 67명 중 37명 회수)으로 사상체질진단과 관련한 안면, 음성, 피부 및 맥진 특징의 체질진단 시 활용도와 각 영역별 다빈도로 활용되는 진단요소 및 중요시하는 체질별 특징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상체질진단 시 활용정도에 있어 안면특징은 ‘40-60%’ 및 ‘20-40%’로 활용하는 경우가 각각 16명(43.2%)이었고, 음성특징은 ‘0-20%’로 활용하는 경우가 19명(51.4%)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부특징은 ‘0-20%’와 ‘20-40%’로 활용하는 경우가 각각 14명(37.8%)이었고, 맥진특징은 ‘0-20%’로 활용하는 경우가 25명(73.0%)으로 가장 많았다.

2. 체질진단 시 중요시되는 진단 요소로 안면특징에서는 ‘전면부의 전체적인 형태’, ‘전체적인 인상’, ‘이목비구의 크기 및 모양’ 등의 순이었고, 음성특징에서는 ‘말의 빠르기’, ‘淸濁’, ‘高低’ 등의 순이었으며, 피부특징에서는 ‘두꺼’, ‘감촉’, ‘모공크기 및 피부상태’ 등의 순이었고, 맥진특징에서는 ‘遲數’, ‘浮沈’, ‘虛失’ 등의 순이었다.

3. 각 영역별 중요시되는 체질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체질별 중요 안면특징으로 太陽人은 빛나는 안광, 넓은 이마, 강한 인상 등이었고, 少陽人은 돌출된 이마, 빛나는 눈빛, 얇고 작은 입술, 좁고 뾰족한 턱 등이었으며, 太陰人은 두꺼운 입술, 평면적인 얼굴, 큰 이목비구 등이었고, 少陰人은 유순한 인상, 상하로 길며 가름한 얼굴, 처진 눈매, 작은 이목비구 등이었다.
- ② 체질별 중요 음성특징으로 太陽人은 크고, 멀리까지 들리며, 맑은 목소리 등이었고, 少陽人은 빠르고, 고음이며, 맑은 목소리 등이었으며, 太陰人은 탁음, 느리고 저음의 목소리 등이었고, 少陰人은 작고 힘이 없는 목소리, 천천히 하는 말 등이었다.
- ③ 체질별 중요 피부특징으로 太陽人은 얇고 하얀 피부 등이었고, 少陽人은 얇고 매끄러우며 탄력있는 피부 등이었으며, 太陰人은 두꺼운 기육, 큰 모공, 거친 피부 등이었고, 少陰人은 곱고 부드러운 피

부, 얇은 기육, 섬세한 모공 등이었다.

- ④ 체질별 중요 맥진특징으로 太陽人은 數, 大 등이었고, 少陽人은 數, 浮 등 이었으며, 太陰人은 緊, 長, 實 등이었고, 少陰人은 細, 弱, 緩 등이었다.

## VI. 參考文獻

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사상의학회간행. 대성문화사, 서울, 1998.
2. 이민봉著, 장문경譯. 金匱秘方(국역한의학대계④). 해동의학사, 서울, 1999:9-13.
3. 김달래譯編. 東醫壽世保元補編(原題 普濟演說). 대성의학사, 서울, 2002:1-24,115-120.
4. 李濟馬著書, 李道耕編譯. 家庭必備 四象要覽. 3판. 원불교출판사. 1995:167-168.
5. 權英植. 四象方藥合編. 행림서원, 서울, 1973: 37-42.
6. 朴寅商. 東醫四象要訣. 개정판. 소나무, 서울, 1997:44-48.
7. 洪淳用. 四象診療保元. 서원당, 서울, 1991: 1-110.
8. 金洲. 四象醫藥 性理臨床論. 대성문화사, 서울, 1998:40-44,52,56.
9. 이의주, 손은혜, 유정희, 김정희, 김규곤, 고병희, 송일병. 四象人의 容貌에 관한 문헌적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5;17(3):55-68.